

이영권 전국대회 '금살바'

<광주시체육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남자일반부 청장급 우승

이영권(광주시체육회·사진)이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금살바를 냈다.

이영권은 12일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남자일반부 청장급(85kg) 결승에서 최준영(구미시청)을 2-1로 꺾고 우승했다.

이영권은 결승 첫 판에서 최준영을 들어 메치기로 기선을 잡았지만 두번째판에서는 뿌리치기로 내줬다. 이영권은 마지막판

에서 밧다리제치기로 제압, 금메달을 안았다.

이영권은 2회전에서 장사 7연패의 기록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헌승민(의성군청)을, 준결승에서 지난해 전국체전 동메달리스트 황주태(부산 갈매기)를 각각 2-0으로 놉혔다.

문무종 감독은 "이영권은 유연한 하체와 허리를 이용한 배지기와 일풀"이라며 "특히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표로 한 체급을 낚쳤는데 출전한 첫 대회에서 우승해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체력열세 광주FC 속수무책 ... 0-4 대패

챌린지 4R 대전 시티즌전

FA컵 연장전 여파 '무기력'

광주 FC가 대전 시티즌전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다.

광주 FC가 13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리그 4라운드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0-4를 기록했다.

지난 9일 베스트 멤버를 총 가동 시켰던 고양과의 FA컵의 여파로 공·수에서 세밀함이 떨어졌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2-1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체력을 소진했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찾아온 드롭 기회에서 김호남의 발길이 골대를 비켜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41분 수비 빙틀을 파고든 대전 김찬희가 원발수팅으로 광주의 골문을 갈랐다.

0-1로 뒤진 후반 4분, 김호남에게 찾아온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도 무위로 끝난 뒤 대전의 과상공세가 시작됐다. 후반 6분 김찬희가 다시 한번 골망을 훔들었다. 후반 19분과 25분에는 대전 아드리아노가 연속해서 골망을 보면서 일방적인 흐름이 됐다.

광주는 공격 침투 속에 수비진들의 집중력까지 떨어지면서 0-4로 쓴 패배를 맛봤다. 정규리그 성적은 1승2무2패(승점 5)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영 KLPGA 우승

이민영(22)이 201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에서 역전 우승으로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민영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골프장(파72·6천187야드)에서 열린 롯데마트 여자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언더파 66타의 블루칩을 휘둘렀다.

선두에 1타 뒤진 2위에서 출발한 이민영은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내 조윤지(23·하이원리조트)와 안시현(30·골든블루)을 2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이민영은 시즌 상금 랭킹 1위(1억1천600만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내 공이야 저리 비켜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1로 패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소속

기성용 선수가 에버턴 소속 실버 디스탱 선수와 공을 다

투고 있다. 선덜랜드는 이날 0